

세상을 치유하라.

The only work that will ultimately bring any good to any of us is the work of contributing to the healing of the world. (Marianne Williamson)

결국 우리 개인에게 어떤 선을 가져오게 될 유일한 일은 세상을 치유하는 데 공헌하는 일이다. (마리안 윌리엄슨)

5월의 첫날입니다. 모처럼 따스한 햇볕과 화창한 날씨가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기대하던 미래입니다. 우리도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을 내일(來日) 다가올 날, 미래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활짝 핀 빨간 철쭉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활짝 웃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도 세상을 치유하는 데 공헌하는 일이겠지요? 어떤 일든 결국 개개인에게 좋은 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세상을 치유하는 데 공헌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낸 미소는 사소한 것이라 여길지 모

르지만, 세상을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작은 변화의 시작이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가 그 증거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오늘 세상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가 하는 작은 좋은 일은 모두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